

농어촌公, '지하해수' 개발 사업 착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양식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하해수'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시험을 맡아 전국 125개 지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2017년까지 88개 지구를 조사 완료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육상 양식장이 몰려 있는 영광·신안·해남·완도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올해 양식장 용수관리 사업을 추진

양식어가 경쟁력 강화...해양수산부 주관

영광·신안·해남·완도 등 6개 지구 대상

해 양질의 지하 해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양식장 용수관리 사업은 지하 해수 개발 가능 최적지를 조사해 육상 양식장에 필요한 지하 해수 이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안 도서지역 지하해수 탐사와 시추를 통해 개발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운이 일정하고 수질이 뛰어난 지하해수를 양식장에 공급함으로써 수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양식어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전남 지역 총 63개 사업 대상지구 중, 윤도군 등 42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다. 향후 21개 지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균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닥터' 윤장현 광주시장, 비행기서 또 응급환자 구해



의사 출신 윤장현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인천발 미국 LA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안에서 60대 베트남 여성 응급처치하고 있다.

"기내에 의사나 의료지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2일 오전 7시(한국시간), 인천발 미국 LA행 아시아나항공기 02204편 안, 11시간간의 비행을 마치고 LA 국제공항에 착륙할 즈음,

를 떨면서 가쁜 호흡을 물어쉬고 있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몸은 죽 쳐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남편은 불안해 별반 동동 굴렀다.

병력을 물었다. 평소 고혈압과

고, 탈 없이 목적이 도착해 병원에서 주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사 출신인 윤 시장이 국외 출장 중 응급환자를 돌본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그동안 4명이나 구했다. 이 중 두 번은 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시민시장으로 취임한 이듬해인 2015년 11월 중순, 정율성읍의 죽제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장사(長沙)시에 가던 중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를 돌봤다. 맥박 등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자세 교정과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 글에 이 승객은 5분여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윤 시장은 이후에도 승객 곁에 머무르며 수분을 섭취토록 하고, 안정적 자세를 취하도록 조치한 뒤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승객은 의식을 되찾은 후 "윤 시장의 빠른 조치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윤 시장은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자격으로 인도를 가던 길에, YMCA 이사장 자격으로 동티모르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도 응급환자를 구한 바 있다.

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영상과 사진을 올린 뒤 "무슨 복지인, 인연인지 해외출장 중에 만 벌써 4번이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며 "이제 두 달 후면 '시장님 보다는 '의사 선생님'으로 불릴 터이니 이미 사회복귀 훈련은 국제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얼마 후,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

신봉우 기자

자매도시 샌안토니오시 건국의날 참석차 미국행

60대 베트남 여성 응급처치 실시해 안정 되찾아

기내방송을 통해 승무원들이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광주시의 미국 자매도시인 샌안토니오시 건국의 날 참석차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의사 출신 윤장현 광주시장은 위급 상황을 직감하고 "여기요"를 외친 뒤 급히 승무원을 뒤패랐다.

우려했던 상황이 눈 앞에 펼쳐졌다. 60대 베트남 여성이 팔다리

당뇨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 "혈압은 오르고 저혈당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한 윤 시장은 승무원에게 청해 환자를 비즈니스석으로 옮겨 편히 눕힌 뒤 급한 대로 가능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얼마 후,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

신봉우 기자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Fax 062-222-5548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나주·장성



湖 南 新 聞 이
지 역 공 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onam@naver.com
F 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onam.com

湖 南 新 聞

한정승인 공고

사간번호 : 광주기장병원 목포지원
2018-단 197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노상우(70423-165014)
최후주소 : 전남 영암군 서호면 서호로 41
등록기준지 : 광주서구 월산로 24번길 10의 13

위 망 노상우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 제4항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3자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5월 3일

공고인 : 노보람 노남희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정민경)
주 소 : 광주 북구 풍화로 37번길 17, 401호
(우동)
현정승인수리일 : 2018년 4월 27일
공고기간 : 2018. 5. 3 ~ 2018. 7. 4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 | |
|----------|--------|
| ■ 건설면허신청 | ■ 기장대리 |
| ■ 임도상식증여 | ■ 법인설립 |
| ■ 기업 진단 | ■ 외부감사 |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
통센터 30동 217호(포암지구)
TEL : 062-63-1060 FAX : 062-6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5월엔 동구문화센터로 문화마실 가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 동구문화센터 아트홀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린다.

먼저 4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장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SAC on screen'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연극 '윤동주, 딸을 쏘다'가 펼쳐진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작품은 일제 강점기 비극의 역사 속에서 자유와 독립을 꿈꿨던 순수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11일에는 2016년 개봉해 2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모은 가족애나메이션 영화 '도리를 찾아서'를 상영한다.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우수공연을 지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우수공연단체 '수이크택견'이 국내 최초 택견 공연 '설판·잘하면 설판·못하면 죽을 판이오!'를 라이브로 선보인다.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절골 도랑살리기

광주 서구가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선정됐다.

서구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선정되어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천동 일대 절골마을의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도량의 회복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도량 협의체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추진까지 직접 참여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절골도량의 수질을 개선하고 모두가 찾아오는 밝은 도량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참여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치매, 조기검진부터 교육까지 원스톱"

광주 남구는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돌봄 지원을 위해 치매 극복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인다.

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부터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돌봄 부담 해야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이곳 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 통지된 날짜에 해당 지역에 찾아가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는 5월까지 진행되며, 치매 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협력 병원인 남광주 병원과 조선대 병원, 해파류 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와 침별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투명·책임행정 실현

광주 북구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2018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12건을 선정·공개했다.

이에 북구는 지난 3월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선정 기준과 사업부서 의견을 거쳐 공개과제 예비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지난달 2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광산구 수원동 지사협 장애인 주민 봄나들이

광주 광산구 수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수원동 지사협')은 장애인과 가족 17명과 지난 4월 27일 함께 나들이를 찾았다. 나들이 이름은 '나누면서 채우는 문화체험'. 거동이 어려워 평소 먼 거리 여행을 가기 힘든 장애인 세대를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물건 오른 봄 정취를 만끽하며,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수원동 지사협 위원들도 주민과 대화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살폈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 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